

아버지의 양육태도, 학령기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하 수 정¹⁾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매개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을 확인하는데 주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 대상은 수도권에 위치한 7개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 314명으로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태도, 성역할고정관념 및 내적동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별로 실시된 중간고사 성적에 근거하였다. AMOS를 이용한 구조모형분석 결과,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자율적, 성취 및 합리 지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낮았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내적동기 수준이 높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여아의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매개로 여학생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여아의 발달을 위한 아버지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양육태도, 유능성, 성역할 고정관념, 내적동기.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자료의 일부임

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론

학령기를 중심으로 최근 학업성취에서 보이는 여학생들의 약진은 영국, 미국, 호주 등의 서구뿐만 아니라(Whitehead, 2006) 우리나라에서도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2006년도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의 경우 전 과목에서 여아의 우수 학력 비율이 남아보다 높았다(통계청, 2007). 한편, 과거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 하는 것 만으로도 능력 있는 아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리더십(leadership)이나 주장적 행동(assertive behavior)을 잘 하는 것 또한 학령기 아동의 능력, 즉 유능성(competence)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주장적 행동이란 상대방의 권리나 의견을 중시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주장이나 의견, 느낌 등을 솔직하고 적절한 태도로 표현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예의범절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아동이 주장적 행동을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기술로 여긴다(서보윤, 2009; 한혜진, 2002). 특히 이러한 사회적 능력은 전통적으로 남아들의 특성으로 여겨졌으나, 점차 여아들에게서 더 적극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와 저서에서 남아에 비해 여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리더십이나 주장적 행동기술을 사용한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다(박선경, 2002; 유진규, 2007; 진행래, 2006; Kindlon, 2007; Seevers, Dormody, & Clason, 1995). 학업성취나 리더십 및 주장적 행동에서 남아들보다 월등한 능력

을 나타내는 여학생들을 ‘알파걸(alpha girl)’로 칭하기도 하며(Kindlon, 2007), 이러한 ‘알파걸’ 현상은 국내외에서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유능성(competence)을 학업능력뿐 아니라 리더십이나 주장적 행동 등 사회적 관계 영역에서도 나타내는 뛰어난 기량으로 정의하고, 여학생들의 유능성을 예측하는 변인 및 그 경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처음 ‘알파걸’이란 용어를 사용한 Kindlon(2007)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유능한 여아의 등장은 남녀평등이라는 시대적 가치관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시대적·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가정 내의 분위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적 또는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나미순, 2006; 임은미, 1998; 최효임, 김성일, 2004; 황보영란, 박경란, 전영자, 1998; Bean, Bush, McKenry, & Wilson, 2003; Bronstein, 1994; Bronstein, Ginsburg, & Herrera, 2005).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에 초점을 두었고,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몇몇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지적, 신체적, 사회·정서적 발달을 포함한 자녀의 전반적인 발달에 기여하며(강혜선, 1987; 김나영, 2002; 이사라, 1995),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Davidov & Grusec, 2006;

Isley, O'Neil, & Parke, 1996). 특히 아버지가 적절한 애정과 수용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격려하고 합리적으로 대할 때, 딸의 인지적·사회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나영, 2002; 이사라, 1995; Baumrind, 1978; Biller, 1981; Steinberg, 200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딸의 발달간의 관계만을 보고하고 있어, 아버지의 태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한편, 경로를 살펴본 소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으나(곽소현, 2005; Bean, Barber, & Crane, 2006),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특성 등 내적 변인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Fulton & Turner, 2008)고 보고되어 비밀관성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한 소수 연구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버지의 경우에도 그대로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적인 양육자인 어머니가 보다 많은 시간을 통해 직접적으로 아동의 생활을 계획하고 지도하는 것과 달리, 아버지는 특히 딸과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성희, 임성택, 2009). 즉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기 보다는 딸의 내적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심리

적 특성을 매개로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Whitehead(2006)는 초등학교 여아가 남아보다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의 배경에 성역할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즉,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강한 남아는 교실환경에 순응하거나 학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을 여아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여기는 반면, 여아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보다 유연하므로(김소정, 2008; 김정민, 2005; Whitehead, 2006), 스스로 고정관념에 얽매인 제약을 덜 하게 됨으로써 남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게 된다. 또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성장사를 고찰한 Steinberg(2001)에 따르면, 이들은 아버지로부터 성역할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취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받았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 볼 때,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그들의 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컨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르면, 자율적인 태도와 도전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행동은 남성적인 특성에 해당하는 반면, 순종적이고 유약한 모습은 여성적인 특성에 해당한다. 따라서 자율성이나 성취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아버지의 태도는 딸로 하여금 여자도 남성과 똑같이 도전하고 성취할 수 있다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고, 나아가 딸의 유능성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하여 경험적으로 증명한 연구는 거의 없다.

한편, 알파걸 집단은 성취의욕이 높고 자신만만한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어(유진규, 2007; Kindlon, 2007), 인지적으로

나 사회적으로 남아보다 탁월한 능력을 나타내는 여아들은 내적동기 수준 또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내적동기(internal motivation)란 어떤 일을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상태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동기를 의미한다(Meece, Glienke, & Burg, 2006; Ryan & Deci, 2000). 이러한 정의에 근거해 볼 때 내적동기는 자발적인 관심과 호기심에 따라 독자적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성취동기의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신이 유능하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동기라는 점에서 자기유능감이나 자기효능감의 성격을 포함한다. 이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높은 수준의 성취동기나 자기유능감이 아동의 인지적 또는 사회적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나(남주영, 2004; 박영신, 김의철, 2003; 소연희, 2008; Bandura, Barbaranelli, Caprara, & Pastorelli, 1996), 이러한 변인들의 역할을 아버지와 여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내적동기에서 나타나는 성차의 원인을 고찰한 Meece 등(2006)은 내적동기 발달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을 들고 있다. 이들 주장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동은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주어진 과제나 활동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부여하게 되며, 특정 과업에 대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 결국 부모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적동기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고찰을 종합해보면, 학령기 여아의 유능성과 관련된 주요 특징으로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와 리더십 및 주장적 행동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성취동기·자기유능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 수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나 리더십, 주장적 행동과 같은 능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사회적 능력이 다른 아동보다 탁월한 여아의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들이 무엇인지, 또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경로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힌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인지적 및 사회적 능력 발달간의 관계에서,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 동기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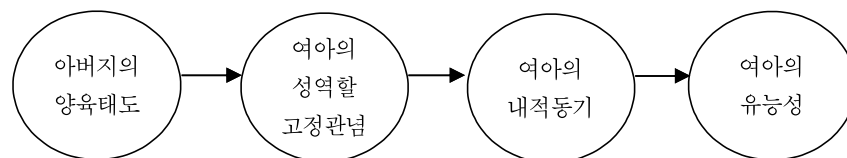


그림 1.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학령기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연구모형

연구문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이르는 경로에서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7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여아 314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시기가 학업성취나 리더십과 같은 학업적·사회적 유능성을 비교적 잘 관찰할 수 있으면서도 부모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아의 평균연령은 10.9세($SD=3.66$)이었으며,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44.2세($SD=4.41$), 어머니는 41.3세($SD=4.06$)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대졸비율이 각 55.1%, 49.7%로 가장 높았으며,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 은행원, 공무원, 교사 등의 비율이 63.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는 전업주부가 49.4%로 가장 많았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 그리고 여아의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매개변인으로 설정한 내적동기 수준은 Meece 등(2006) 및 Ryan과 Deci(2000)의 정의에 기초하여 성취동기와

자기유능감으로, 그리고 종속변인인 유능성은 리더십, 주장적 행동 및 학업성취도로 개념화하였다. 또한 유능성 중 학업성취도는 각 학교에서 실시한 중간고사 성적으로 측정하였고, 그 밖의 모든 변인은 여아의 자기보고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오성심과 이종승(1982)의 부모의 양육태도 척도를 아버지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애정, 자율, 성취, 합리의 4개 차원 각각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2점)와 ‘아니다(1점)’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지향’, ‘자율지향’, ‘성취지향’, ‘합리지향’인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8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32문항의 Kuder-Richardson 20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80이다.

성역할 고정관념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직업과 성격특성 2가지에 대한 것으로 조사하였는데, 직업은 서영숙(1986)의 척도를, 성격특성은 Lee(1982)의 한국인 성특성고정관념검사지(Korean Sex Stereotype Measure: KSSM)를 서영숙(1986)이 번역한 것으로 수정해서 사용하였다. 직업과 성격특성 각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서, 문항의 판정이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남녀 모두’인 경우가 각 3문항씩 되도록 구성하였다. 아동의 대답이 판정과 일치할 때 2점, 반대일 경우 1점을 주고, 판정이 ‘남녀 모두’인

경우에는 판정과 일치할 때, 즉 특정 직업이나 성격이 남녀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답한 경우에 고정판념이 더 유연한 것으로 보고 점수를 역코딩하였다. 따라서 총점이 높을수록 고정판념이 강한 것으로 해석되며, 본 척도의 Kuder-Richrdson 20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73으로 나타났다.

내적동기

내적동기가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내적 상태라는 점에서 성취동기를, 또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동기라는 점에서 자기유능감을 측정변인으로 정하였다. 성취동기 측정은 Harter (1981)의 '내재적 및 외재적 동기 성향 척도 (A New Self Report Scale of Intrinsic v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도전에 대한 선호 대 쉬운 과제에 대한 선호', '호기심/흥미 대 교사 인정', '독자적 숙달 노력 대 교사 의존', '성공/실패에 대한 내적 기준 대 외적 기준'의 4개 하위 영역별로 6개 문항씩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자기유능감 측정은 '아동용 자가지각 분석표(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SPPC)'(Harter, 1985) 중 '학업능력'과 '사회적 수용' 유능감에 관한 12문항과, '지각된 유능감 척도(Perceived Competence Scale)' (Harter, 1982)의 '일반적 자아가치' 6문항 등 총 18개 문항을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척도는 사회적 바람직성 응답경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양자택일 형식(structured alternative format)'을 취하고 있다. 점수범위는 1~4점으로, 제시된 아동유형의 좌우측이 반

대인 경우에는 점수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으면 내재적 동기 성향과 자기유능감이 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와 자기유능감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4문항과 1문항을 각각 제외한 나머지 20문항과 17문항만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Cronbach's α 에 의한 내적일치도는 각각 .80과 .83로 나타났다.

유능성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여아의 유능성은 학업 성취도, 리더십, 주장적 행동으로 측정하였다. 이 중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해 2009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백분위로 환산하였고, 백분위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상위수준임을 의미한다. 리더십은 한국교육개발원 (2003)의 '리더십 진단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목표달성능력', '재창조능력', '통솔력'의 3개 영역별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주장적 행동은 Lorr와 More(1980)가 개발한 주장성 척도를 수정·변안하여 측정하였으며, '사회적 주장성'과 '권리와 이익 방어'의 영역별로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는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리더십과 주장적 행동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Cronbach's α 에 의한 리더십 15개 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8이었으며, 척도의 신뢰도를 낮추는 3문항을 제외한 주장적 행동 9문항의 내적일치도는 .61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의 검증

위해 AMOS 16.0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 경로의 전제 조건과 관련하여 잠재변인들 간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가 아버지의 양육태도 및 여아의 유능성 간 관계를 완전매개할 것으로 가정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여아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포함한 부분매개 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였고, 그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에 앞서,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내적동기 및 유능성을 측정하는 하위변인들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기본적으로 χ^2 값과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NFI, TLI, CFI는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RMSEA

표 1.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NFI	TLI	CFI	RMSEA
측정 모형	73.074	36	.945	.955	.971	.057

표 2.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

(n=314)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p
아버지의 양육태도	애정지향	1.000	.878			
	자율지향	.663	.650	.054	12.301	***
	성취지향	.574	.587	.053	10.775	***
	합리지향	.633	.853	.035	17.590	***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	1.000	.638			
	성격	1.597	.865	.371	4.300	***
여아의 내적동기	성취동기	1.000	.686			
	자기유능감	1.130	.804	.094	12.023	***
여아의 유능성	학업성취도	1.000	.430			
	리더십	.534	.849	.074	7.216	***
	주장적행동	.239	.675	.037	6.410	***

*** $p < .001$

는 .057로 나타났다. RMSEA는 절대지수로 보통 .06 이하일 때 적합하다고 판정하고, .08 이하일 때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Hu & Bentler,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모수 추정치(요인부하량 즉 β 또한 .430~.878이고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표 2 참조),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측정을 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잠재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독립변인인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매개변인인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 종속변인인 유능성 간 관계가 모두 유의미하였으므로, 매개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표 3 참조).

3. 구조모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및 내적동기를 매개로 여아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완전매개 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정하고,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추가한 부분매개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이들의 적합도와 χ^2 값을 비교함으로써 이론모형을 검증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앞서 측정모형의 검증에서 사용한 χ^2 값과 NFI, TLI, CFI, 그리고 RMSEA를 사용하였다.

우선 완전매개를 가정하는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χ^2 값이 151.314($df=41$)이며, NFI는 .886, TLI는 .884, CFI는 .913이고, RMSEA는 .093으로 나타났다. 이는 NFI, TLI, CFI는 .90 이상일 때, RMSEA는 .06 이하면 적합하고 .06~.08이면 양호하다고 보는 기준(Hu & Bentler, 1999)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수정지수를 적용, 측정변인 오차항에 공분산을 설정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2개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추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χ^2 값이 114.750($df=39$)이고, NFI가 .914, TLI와 CFI가 각각 .916, .940이며, RMSEA는 .079로 나타나(표 4 참조), N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표 3. 잠재변인들 간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

(n=314)

	1	2	3	4
1. 아버지의 양육태도				
2.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	-.221**			
3. 여아의 내적동기	.385**	-.172**		
4. 여아의 유능성	.129*	-.190**	.394**	
평균	1.79	1.43	2.88	19.85
표준편차	.18	.24	.47	9.70

** $p < .01$, * $p < .05$

표 4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n=314)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A	114.750	39	.914	.916	.940	.079
B	112.888	38	.915	.915	.941	.079

주. A는 이론모형(완전매개 모형), B는 대안모형(부분매개 모형)임.

표 5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모수 추정치 비교

(n=314)

모형	모수	B	β	SE	C.R	p
A	양육태도 → 성역할 고정관념	-.625	-.340	.131	-4.777	***
	성역할 고정관념 → 내적동기	-.062	-.320	.016	-3.922	***
	내적동기 → 유능성	33.218	.984	5.048	6.580	***
B	양육태도 → 성역할 고정관념	-.436	-.355	.105	-4.165	***
	성역할 고정관념 → 내적동기	-.092	-.306	.023	-4.006	***
	내적동기 → 유능성	28.825	.965	4.381	6.579	***
	양육태도 → 유능성	.808	.069	.553	1.460	.144

주. A는 이론모형(완전매개 모형), B는 대안모형(부분매개 모형)임.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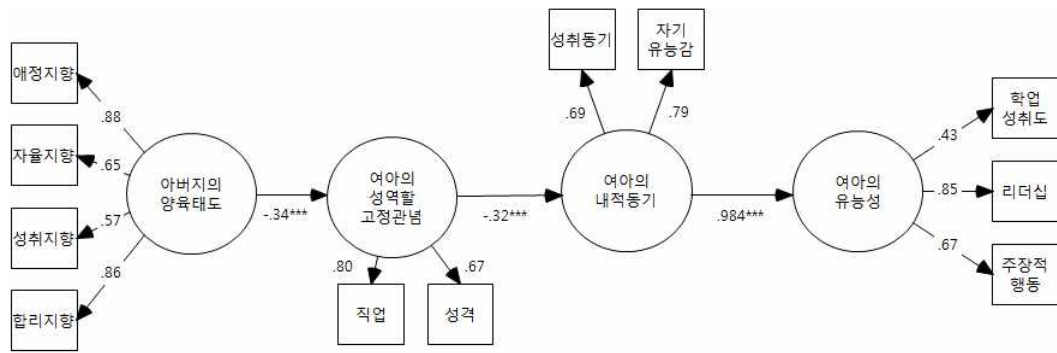
적합, RMSEA는 .08이하이면 양호하다고 보는 기준에 부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모형을 이론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한편, 아버지 양육태도의 직접적 경로를 추가한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 값이 112.888(df=38)이고, NFI가 .915, TLI는 .915, CFI는 .941이며, RMSEA는 .079로 나타났다. 따라서 완전매개를 가정하는 연구모형과 부분매개를 가정하는 대안모형 모두 모델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4 참조).

또한 두 모델의 적합도가 유사하므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 모두의 모수 추정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론모형, 즉 그림 2에서 보듯이 완전매개 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

면,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아버지 양육태도, 내적동기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유능성에 대한 내적동기의 경로 추정치는 각각 -.340, -.320, .984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애정적이며 자율, 성취, 합리를 지향할수록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아지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성취동기나 유능감과 같은 내적동기가 높아지며,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는 학업성취, 리더십, 주장적 행동과 같이 외적으로 부각되는 유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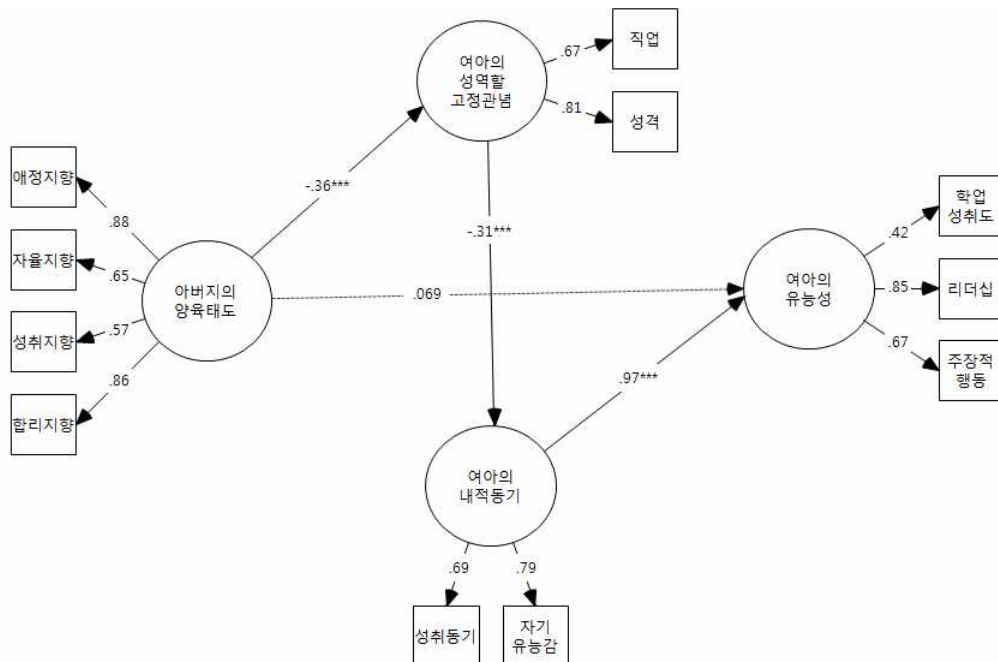
한편 대안모형에서는 이론모형과 중복되는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됨.

그림 2. 이론모형의 모수 추정치



주. 제시된 수치는 표준화 추정치임. 주. 측정오차항은 생략됨.

주.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경로임.

그림 3. 대안모형의 모수 추정치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여아가 지각

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결과적으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은 모델 적합도 측면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대안모형에 추가된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χ^2 값 차이가 유의하지 않을 때는 간명한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¹⁾,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가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여아의 유능성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이론모형이 변인들 간 구조적 관계를 더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가 매개하는지 그 경로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수도권 7개 초등학교 5학년 여아 314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지와 학교성적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론모형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첫째, 여아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적인 영향을 미쳐, 아버지가 애정적이고 자율적, 성취지향적, 합리적으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여아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았다. 이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eece et al. 2006; Whitehead, 2006)를 지지하며, 부모가 자녀를 자율적으로

양육할수록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아지고, 통제하는 양육을 할수록 자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수준이 높다진다는 민귀식(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내적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여아가 유연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성취동기 수준이 높아지고, 자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적동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Whitehead, 1994, 2006)을 뒷받침하며, 아동의 내적동기를 고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성역할 관념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여아의 내적동기는 학업성취나 리더십, 자기주장성으로 정의된 여아의 유능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취동기와 자기유능감 수준이 높은 여아는 실제로 학교공부도 잘하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높은 수준의 내적동기가 학업성취와 같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전경숙, 1985; 한영숙, 현성용, 이종구, 조현철, 2007)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내적동기가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이전의 학업성취 결과가 이후의 내적동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기도(Bronstein et al., 2005, Tiedemann, 2000)하여, 내적동기와 학업성취간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여아가 지각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

1) χ^2 값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자유도가 큰 것이 간결성의 가치(parsimonious value)에서 더 바람직하다(이학식, 임지훈, 2009).

가 여아의 유능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대안모형의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의 직접적 영향력이나 상관관계를 보고하는 연구들(임진영, 장재숙, 2003; Bronstein et al., 2005; Deslandes, Bouchard, & St-Amant, 1998)과는 다르다. 선행연구들이 대부분 부모나 아동의 성을 따로 분석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러한 결과가 여아와 그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화가 가능한 것인지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되어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애정을 바탕으로 자율성과 합리성, 성취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유연하게 하고, 유연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여아는 내적동기의 수준이 높으며,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나 리더십, 주장적 행동과 같은 유능성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는 여아의 유능성 발달에 특별한 기여를 하는 아버지의 역할, 특히 여아의 성역할 관념을 유연하게 하는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과, 여아가 유연한 성역할 관념을 가지는 것이 학업성취 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으로 인해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본 연구는 대부분 질문지 자료에 근거하므로 응답자의 주관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을 지향하려는 경향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둘째, 여러 학교와 학급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유능성 점수 표준화에 어느 정도 한계

가 있다. 셋째,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함께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양육태도가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나 그 영향력을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우선 시대적 가치관의 변화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의 중요성과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부녀관계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유능한 딸의 성장에 아버지가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과 유능성 발달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내적동기가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함으로써, 학교에서 뒤처지고 있는 아동을 어떻게 도와야할지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유능한 아동으로 기르려 한다면, 성역할 고정관념의 틀에 갇히지 않도록 함으로써 내적동기를 유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 동안의 연구가 주로 아동발달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나 영향력을 단편적으로 조사한 반면, 본 연구는 전체적 경로를 탐색하여 아버지 양육이 어떠한 변인들과 경로를 거쳐 여아의 유능성 발달에 이르게 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론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본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양육의 효과(Deslandes et al., 1998; Pomerantz & Ruble, 1998)와 경로 또한 달라지므로(임승현, 2009), 향후 연구를 통해 아동의 성에 따른 경로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형태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김소정, 2008; Kulik; 2005)에 기초해 볼 때, 양육태도와 함께 다른 가정 내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함께 탐색해 본다면 보다 통합적으로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함께 조사하여 그 상대적인 중요도를 분석하는 것도 여아의 유능성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혜선 (198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희, 임성택 (2009). 한국형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1(1), 45-64.
- 광소현 (2005).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 정서, 양육행동과 아동의 문제행동의 경로모형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나영 (2002). 고등학생 딸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 아버지 특성과의 관계.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정 (2008). 청소년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36, 129-149.
- 김정민 (2005). 아동의 성역할 개념의 유연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91-100.
- 나미순 (2006).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리더십간의 관계.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주영 (2004). 영재아의 리더십과 성취동기 상관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황영은 (200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남녀 아동의 공격성 및 친사회성 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85-195.
- 민귀식 (2001). 청소년의 성역할 고정관념 형성과 선행요인의 관계.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경 (2002). 청소년의 생활기술로서의 리더십 분석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3). 한국 학생의 자기효능감, 성취동기와 학업성취: 토착심리학적 접근. 교육심리연구, 17(1), 37-54.
- 서보운 (2009). 초등학교의 사회적 갈등 장면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 전략의 발달. 초등교육연구, 22(1), 199-222.
- 서영숙 (1986). 초등학교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의 발달적 경향과 성평등 역할교육에 따른 변화. 아세아여성연구, 25, 185-217.
- 소연희 (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경로모형을 중심으로. 아동교육, 17(2), 49-64.
- 안도희, 김지아, 황숙영 (2005).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 탐색: 유능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및 학교 환경 특성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9(4), 1199-1217.
- 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의 관계. 서울: 행동과학연구소.
- 유진규 (2007). 왜 여자아이들이 더 공부를 잘할까. 서울: 디자인하우스.
- 이사라 (1995). 딸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성인이 딸의 성격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학식, 임지훈 (2009).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AMOS 16.0. 경기도: 법문사.
- 임승현 (2009). 학령기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온정성 및 아동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또래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 (1998). 부모의 자율성 증진 행동과 청소년자녀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6, 133-150.
- 임진영, 장재숙 (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전경숙 (1985). 아동의 학업성취동기변인과 학업성취도와의 상관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69-76.
- 진행래 (2006). 초등학교 아동의 리더십생활기술 실태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효임, 김성일 (2004).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15(2), 57-92.
- 통계청 (2007). 성별 성취수준 비율의 추이 (2003-2006년도).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한국교육개발원 (2003). 지도력 진단도구 개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영숙, 현성용, 이종구, 조현철 (2007). 학습기술과 학습동기 및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153-172.
- 한혜진 (2002). 자기주장 훈련이 초등학생의자기 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보영란, 박경란, 전영자 (1998). 아동의 인성 및 가정환경변인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16, 193-215.
- Bandura, A., Barbaranelli, C., Caprara, G., & Pastorelli, C. (1996). Multifaceted impact of self-efficacy beliefs on academic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 1206-1222.
- Baumrind, D. (1978). Reciproc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arent-child relations. *Journal of Social Issues*, 34, 179-189.
- Bean, R. A., Barber, B. K., & Crane, D. R. (2006).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among african american youth: The relationships to academic grades, delinquency, and depression.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335-1355.
- Bean, R. A., Bush, K. R., McKenry, P. C., & Wilson, S. M. (2003). The impact of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and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steem of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5), 523-541.
- Billar, H. B. (1981). *The father and sex role*

- development. In M. E. Lamb (Ed.),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2nd ed.). New York: Wiley.
- Bronstein, P. (1994). Patterns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mexican families: a cross-cultur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3), 423-446.
- Bronstein, P., Ginsburg, G. S., & Herrera, I. S.(2005). Parental predictors of motivational orientation in early adolescenc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59 - 575.
- Davidov, M., & Grusec, J. E. (2006). Untangling the links of parental responsiveness to distress and warmth to child outcomes. *Child Development*, 77(1), 44-58.
- Deslandes, R., Bouchard, P., & St-Amant, J. (1998). Family variables as predictors of school achievement: Sex differences in Quebec adolescents.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 23(4), 390-404.
- Fulton, E., & Turner, L. A. (2008).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Relations with parental warmth, autonomy granting, and supervision. *Educational Psychology*, 28(5), 521-534.
- Harter, S. (1981). A new self-report scale of intrinsic versus extrinsic orientation in the classroom: Motivational and informational compon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17(3), 300-312.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the self-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Denver, CO: University of Denver.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Isley, S. L., O'Neil, R., & Parke, R. D. (1996). The relation of parental affect and control behaviors to children's classroom acceptance: A concurrent and predictive analysis *Education and Development*, 7, 7 - 23.
- Kindlon, D. (2007). 새로운 여자의 탄생 알파걸. 최정숙(역). 서울: 미래의창. (2006년 원저 발간).
- Kulik, L. (2005). Predicting gender role stereotypes among adolescents in Israel: The impact of background variables, personality traits, and parental factors. *Journal of Youth Studies*, 8(1), 111-129.
- Lee, J. Y. (1982).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awareness of sex-trait stereotypes among Korean children. Unpublished dissertation thesis, Oregon State University.
- Lorr, M., & More, W. W. (1980). Four dimensions of assertivenes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 127-138.
- Meece, J. L., Glienke, B. B., & Burg, S. (2006). Gender and motivatio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4, 351 - 373.
- Pomerantz, E. M., & Ruble, D. N. (1998). The role of maternal control in the development of sex differences in child self-evaluative factors. *Child Development*, 69(2), 458-478.

- Ryan, R. M., & Deci, E. L. (2000).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25, 54-67.
- Seever, B. S., Dormody, T. J., & Clason, D. L. (1995). Developing a scale to research and evaluate youth leadership and life skills development. *The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36(2), 28-35.
- Steinberg, B. S. (2001). The making of female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The impact of birth order, sex of siblings, and father-daughter dynamics. *Political Psychology*, 22(1), 89-110.
- Tiedemann, J. (2000). Parents' gender and teachers' beliefs as predictors of children's concept of their mathematical ability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1), 144-151.
- Whitehead, J. M. (1994). Academically successful schoolgirls: a case of sex role transcendence,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9, 53-80.
- Whitehead, J. M. (2006). Starting school: Why girls are already ahead of boys. *Teacher Development*, 10(2), 249 - 270.

1차 원고접수 : 2010. 12. 29
수정원고접수 : 2011. 2. 17
최종게재결정 : 2011. 3. 2

Fathers' Parenting Attitudes Predicting Girls' Levels of Competence: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as Mediators

Ha, Soo-Jeong

Park, Seong-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aths in which fathers' parenting attitudes influence their daughters' competence levels through girls'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314 Korean elementary school girls (M age=10.90 yrs.) and their school grad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Perceived fathers'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uch as affection, autonomy, achievement-encouraging, and reasoning were found to indirectly influence the girls' competence through girls'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ternal motivation. The current study confirms the importance of a fathers' parenting as a means of developing their daughters' competence such as academic achievement, leadership and assertive behavior. These findings also suggest that fathers' attitudes oriented to affection, autonomy, achievement and reasoning mostly encourage their daughters to become more competent by facilitating their daughters' flexible gender-role stereotypes and increasing their levels of motivation

Key words : Parenting Attitudes, Competence, Gender-role stereotypes, Internal motivation